

# 광주소방, 소방기술경연 구조전술분야 전국 1위

문상우 소방위 등 6명 특별승진·특별승급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제36회 전국 소방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충남 공주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조대원 문상우 소방위, 최준영·조영훈·반인엽·문선종 소방교가 광주시 구조전술분야 대표 선수로 출전했다. 이번 대회는 화재·구조·구급

전술, 최강소방관, 화재 조사 등 11개 경연 분야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 76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뽐냈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구조팀은 구조전술 분야에서 우수한 구조기술과 완벽한 팀워크로 전국 1위의 영광을 안았다.

1위를 수상한 구조팀은 특전으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다. 김문용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장



은 “구조전술분야 1위이라는 성적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온 구조대원들의 결실”이라며 “훈련 준비를 통해 증진한 체력과

구조기술로 각종 재난 현장에서 더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매일유업 광주공장 영양식 식품 기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29일 오전 매일유업 광주공장에서 겨울추위에 취약한 독거어르신을 위한 영양음료를 고정수 매일홀딩스(주) 상무로부터 전달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 퇴직 앞둔 공무원, 제주도서 심폐소생술로 인명 구해

동구건설과 변미용 주무관, 의식 잃은 70대 남성 구조



변미용 건설과 주무관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공모 연수 차 찾은 제주도에서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변미용(60) 건설과 주무관이 제주도 한 식

당에서 의식을 잃은 70대 남성 A씨를 구했다.

당시 공모 연수 차 제주도를 찾은 변 주무관은 아침 식사 도중 식탁 위에 머리를 댄 채 움직이지 않는 한 7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변 주무관이 다가가 A씨의 상태를 확인해보니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기도에 문제가 생긴 것을 직감한 변 주무관은 A씨의 입 안에 남아있던 음식물을 없앤 뒤 하임리히법(기

도폐쇄치법)으로 복부를 압박했다. 그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곧장 바닥에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변 주무관은 119대원들이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10여 분 남짓 심폐소생술을 이어갔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되찾았다.

변 주무관은 “평소 구청에서 응급 처치 교육을 받아 당황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긴 공직 생활 여정의 마무리에서 한 생명을 구하는 데 보람이 꽤 무척 뜻깊다”고 말했다. /김도기 기자

## 광양읍사회보장협의체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의체 공공·민간위원장, 새마을봉사단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식사하셨습니다’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밑반찬 나눔 사업은 2023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공모사업 공모 결과 선정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7백만원을 지원받고 광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20만원을 자부담해 총사업비 820만원으로 추진된다.

## 5·18민주화운동·제주4·3민주 인권 평화체험 캠프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만나다! 소통하다! 기억하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함께 지난 15~16일 광주와 제주 초등학생 60명 대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일대에서 2023년 5·18민주화운동 및 제주 4·3민주·인권·평화체험 캠프를 진행했다.

18일 동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광주와 제주의 초등학생들이 서로의 역사와 문화 교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의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프 참여 학생들은 사전에 광주-제주 온라인 교류학습을 통해 제주 4·3, 학생독립운동과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의 공중 수업 등을 함께 했다. 학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수업에서 만났던 역사적 유적지를 직접 탐방할 수 있게 됐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광주와 제주의 초등 5학년 학생 각 30명이다. 이들은 이번 제주 캠프 1차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오는 6월 30일~7월 1일 진행되는 2차 캠프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프는 1일차에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및 관람 ▲난타공연 관람 ▲‘평화의 책따라리’를 주제로 평화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이어 2일차에 ▲제주 4·3 유적지 탐방(정방폭포, 첫알오름, 백조일손지 등) ▲탐나라공화국 생태체험활동 ▲캠프를 마치며 소감 나누기 등이 이뤄졌다.

캠프에 참가한 한 광주 학생은 “제주 친구들과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리고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4·3이라는 슬픈 역사가 있다고 배웠다. 모두가 평화롭게 살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제주 학생은 “광주 친구들과 함께 한 1박 2일이 즐거웠다. 친구들과 수업에서 만났던 광주 캠프가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정성숙 교육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광주와 제주 학생들이 민주·인권·평화의 역사와 가치에 대해 배우고 기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조순주 기자

## 광양문화도시센터 ‘나의 마을 일지2’ 설명회

광양시문화도시센터는 예술을 매개로 한 문화동행마을 구축 사업인 ‘하동군 청년예술가×섬진강 끝마을’의 사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센터는 섬진강을 건너 ‘오고가는 문화교역’을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하동군 청년예술인 5인과 진월면 마을 5곳을 연결해 4개월간 마을 예술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동군 청년예술인들은 섬진강 끝마을(문학·사평·신기·오추·추동마을) 사전 답사를 마쳤으며, 분야별 예술을 매개로 주민들과 교류하고 문화교역을 이뤄갈 것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작가들은 앞으로 함께 활동할 마을주민에게 사업의 목표와 취지, 일정을 소개하고 계획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순천교육청, 그림책교육지도사 과정 운영

유·초·중 학부모 20명...2023 학부모재능기부자양성과정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는 순천 관내 유·초·중학교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학부모 재능기부자 양성과정(그림책교육지도사 3급)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재능기부 활동에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학부모로 선정했으며, 지난 3월~4월 중 총 30시간으로 운영했던 그림책교육지도사 3급 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한 학부모로 구성되어 지난 5월 19일부터~6월 15일까지 1회 4

시간씩 운영했다. 또한 이 과정은 총 50시간으로 오는 7월 21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순천 학부모재능기부자 양성과정은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순천 학부모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교나 마을도서관 등 다양한 활동 장소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조순주 기자

## “베트남 이주노동자 치료 돕겠다” 온정 손길

전남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후원금 전달



광산구는 16일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가 베트남에서 온 광산구 거주 이주노동자의 의료비, 지역 다문화 가정 생활비 지원을 위해 후원금 500만 원을 투계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베트남에서 부인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온 A씨는 올해 뇌종양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수술받았다. 수술 당시에도 고국에

가지고 있던 모든 부동산을 처분했지만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 한국의 베트남 공동체가 실시일만 돈을 모아 지원했다.

덕분에 수술은 마쳤지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 치료비가 없어 막막해진 A씨의 지인이 광산구를 통해 다방면으로 도와줄 곳을 찾던 중 사연을 들은 총동창회가 선뜻 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것이다.

/이동기 기자

##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학부모교육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위한 학부모 교육 실시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폭력전담지원기관 지세음이 오는 20일부터 관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교육’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에 따른 교육활동 정상화로 인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시교육청은 가정교육과 연계해 현실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을 중점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 행동 원인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양육 방법을 익혀,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아이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전문가와의 대화 시간과 공예 체험 행사를 마련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부모의 마음도 위로하고자 한다. 올해 교육은 오는 20일·22일·29일 18시30분~20시 30분까지 총 3차

레 운영한다. 강의 첫날인 20일에는 지세음에서 임상심리전문가 이세라 박사가 ‘ADHD 아동 및 청소년의 이해와 적절한 양육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이어 22일은 봉선동 ‘동네작업실’에서 공예전문가와 함께하는 가족 공예 체험이 운영된다. 29일은 지세음에서 샘솟는 아동·청소년 상담센터 김금은 소장의 ‘청소년기 인지·정서·행동의 이해와 건강한 소통 방법’ 강의와 상담이 진행된다. /조순주 기자